

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(10.31일)

□ 지금부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[APEC 정상회의 성과]

□ 먼저, 경주에서 열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,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.

○ 美中을 비롯한 주요국들간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,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□ 정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[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]

□ 이번 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은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입니다.

○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·반도체·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○ 정부는 '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'를 가동하고, '희토류 수급대응센터'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○ 더 나아가,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·융자를 촉진하고,

-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, 공공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[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]

- 오늘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합니다.
- 이제는 자원확보의 개념을 '채굴'에서 '회수'로 확장해야 합니다.
 -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, 부존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입니다.
- 이를 위해 먼저,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순환자원 지정 확대,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.
- 또한,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기금의 투자·융자를 활성화하고, 시설·장비 및 R&D·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[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]

- 마지막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.
- 지난 1년간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누적 6.5조원('25.9월 기준)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,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하였습니다.

- 다만, 출범 초기단계로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, 대출 중심*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도 있습니다.

* 지원 실적('25.9월 누적): (전체) 66건, (대출) 64건, (투자) 2건

□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○ 먼저 2,500억원 규모의 '핵심광물·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'를 조성하는 등 직·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,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하겠습니다.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